

1990년대 호남지역경제의 전개과정: 지역경제의 수렴 또는 확산?

The Honam Region's Evolutions in the 1990s: Convergence or Divergence?

정준호*

지역
연구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 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1. 서론

지역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미묘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이는 영·호남 사이의 분단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 대립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지역간 경제격차는 심화되었는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가 아니면 완화되었는가? 지역간 경제격차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통계자료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랫동안 지리학, 도시계획, 경제학 등에서 다루어져 왔던 문제이다. 지역간 경제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 소득과 부의 배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적인 지표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경제의 전개과정(evolu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호남 대립의 한 축인,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알려진 호남(광주, 전북, 전남)지역경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남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그림 1). 이는 기존의 이미지

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수치의 이면에 있는 실상을 밝혀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요인(3절)과 호남지역경제의 전개과정(4절)을 살펴보는 데 있다. 단순히 통계적인 지표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지표(이를테면, 노동생산성)를 요소분해(decomposition)하여 경제적, 인구학적 요소들이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상이한 경제부문의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지역성장과 지역격차

지역의 경제격차에 관한 논의는 경제성장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신고전적 경제성장 모형은 성장을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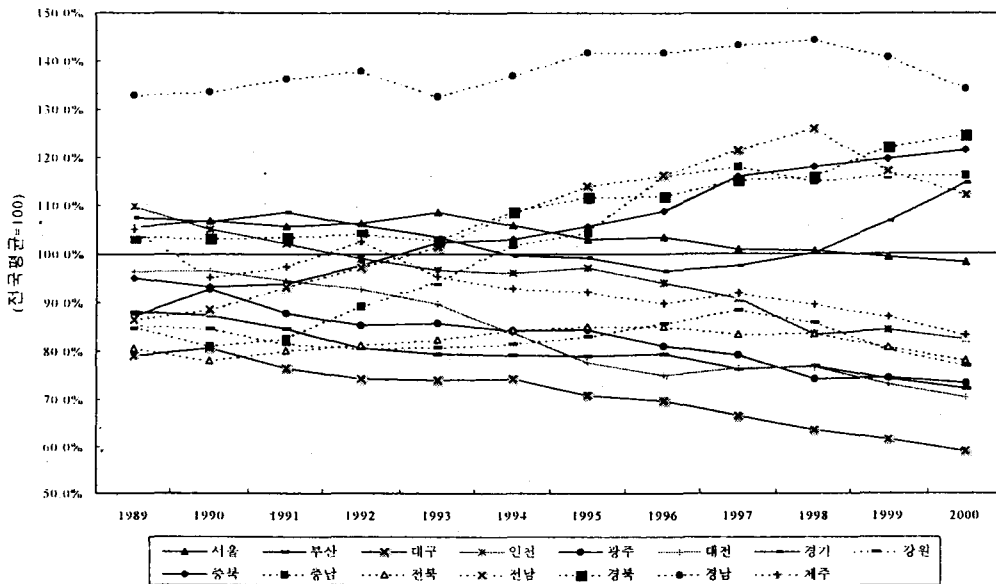


그림1. 전국평균대비 각 시도별 1인당 GRDP:1989~2000(1995년 불변가격기준)

과 노동투입량 및 생산성 성장의 함수로 설명한다. 자본의 성장은 투자에, 즉 금융과 저축률에 의존하고, 노동공급의 성장은 인구 성장에 달려 있다. 반면에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또는 체감)을 가정하고서 생산성 증대는 외생적으로 결정된 기술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성장의 추격(catch-up)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률과 인구성장률이 비슷하다면, 낮은 자본과 노동비율을 가진 지역이 높은 자본과 노동비율을 가진 지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지역간 경제의 수렴(convergenc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수렴을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사한 조건들의 존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렴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의 현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식과 기술은 순수한 공공재이고 이는 공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발전지역에서 자본투자 및 취업자당 자본스톡의 증대는 높은 한계수익을 실현하고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경제 및 기술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 이러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세계에서 자본이 저소득 지역으로 이동하고 노동이 고소득 지역으로 이동하여 1인당 소득의 균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Borts and Stein, 1964).

최근의 내생적 성장모형²⁾은 이러한 신고전적 성장모형과 다르다. 내생적 성장모형은 1인당 산출물의 누적적인 증가는 지식과 기술(및 숙련과 노하우)에서의 누적적인 향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성장은 내생적인 연구개발의 누적적인 영향과 생산설비 및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모형이 신고전

적 성장모형과 구별되는 점은 기술에 대한 인식과 가정의 차이이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에서는 지식을 증대시키는 투자는 수확체감을 낳는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의 고정비용이 판매의 상당한 증가에 의해 상쇄될 수 있고, 이러한 지식에의 투자는 강한 외부성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은 완전히 특허로 보호될 수가 없고 무한정 비밀로 유지될 수가 없다. 동일한 지식이 동시에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은 다른 투입요소와는 다르다.

단순한 복제 자체가 이러한 지식을 체화한 장비와 재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은 상이한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사람들이 제로(zero) 한계비용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경합재(non-rival good)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전유성과 배제가능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지식은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시장지배력과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들은 발견, 발명, 정보에 대해 사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이는 계획적인 투자에서 비롯되고 그들이 독점지대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기술과 지식은 순수한 공공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 비경합재로 간주된다. 기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과 완전경쟁의 세계에서 수확체증과 불완전 경쟁의 경제세계에서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지역격차의 수렴보다는 확산(divergence)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세계에서 크루그먼(Krugman, 1991)은 경제활동의 집적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이 크루그먼이 신고전적 입지이론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³⁾ 그는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은 공장수준에서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확체증은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장소

에 집중된다면 재화와 서비스가 보다 값싸게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수확체증의 세계에서 강력한 구심적인 경향은 지역간 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모형 및 신경제지리학의 모형은 순환누적인과모형과 조우할 수 있다(Dunford, 2002). 누적인과모형은 영(Young, A.), 뮈르달(Myrdal, G.), 허쉬만(Hirschman, A.) 그리고 칼도르(Kaldor, N.)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 모형은 산업내 또는 산업간 분업의 증대 및 상호의존적이고 통합된 산업구조의 형성과 노동생산성의 증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분업의 증대는 기업내, 산업내 및 산업간 직무의 전문화와 취업자당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서로를 보완함에 따라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일련의 외부경제를 창출한다.

순환누적인과모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수요와 공급 증가 사이에는 자기강화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분업의 증대,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은 산출의 성장률, 시장규모의 증가와 수요성장률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 수요성장률은 경쟁력과 효율성 임금(임금률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수요와 산출의 성장이 상대적인 성장과 쇠퇴의 누적적인 또는 자기 강화하는 과정을 창출하는 것이다.

발전지역의 성장은 낙후지역에 부정적인 역류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하지만 반대방향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확산효과가 존재함에 따라 누적적인 성장 메커니즘과 부정적인 역류효과가 반드시 자기 영속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던포드(Dunford, 2002)가 제시하고 있듯이, 이 모형의 장점은 경제성장에서 모순적인 두 힘,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투자는 생산과 교환조건의 균등화로 치닫지만, 이윤획득을 위한 축적은 생산과 교환조건의 지속적인 차별화를 낳는다.

지역간 경제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의 소득과 부의 배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적인 지표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지역경제의 진화(evolu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추세를 측정하는 지표(가령, 노동생산성)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분해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분해(decomposition)는 경제적, 인구학적 요소들의 지역성장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 상이한 경제부문의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³⁾

3.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세

앞에서 논의된 순환누적인과성장모형이 함의하는 모순적인 두 힘들을 염두에 두고서,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격차의 요인과 생산성, 노동공급, 인구는 변수를 통해 - 방법론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의 요소분해를 통해 - 호남지역의 경제성장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GRDP를 그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⁴⁾가 흔히 사용된다. 이 지표는 생산적인 측면을 나타내므로 실질적인 지역주민소득을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진화과정을 모두 밝혀줄 수는 없을지라도 지역격차의 동학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1인당 GRDP는 EU, IMF, OECD, UN 등에서 상이한 지역경제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호남지역경제의 전개과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역격차의 추세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호남지역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비교의 잣대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15개 시도간⁵⁾ 1인당 GRDP 격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구가중 변동계수(population-weighted standard deviation/mean, WSD/Mean)와 인구가중 평균절대편차계수(population-weighted mean absolute deviation, WMAD)를 사용하였다(그림 2를 보라). 1990년대 초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SD/Mean은 1989년 14.1에서 2000년 21.7로 약 53.9% 증가하였으며, WMAD 또한 1989년 11.6에서 2000년 21.7로 약 87.1%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될 수 있다.

$$\frac{Y}{P} \equiv \frac{Y}{E} \times \frac{E}{P}$$

$Y=GRDP, P=인구, E=고용수준(취업자수)$

Y/E 는 노동생산성을, E/P 는 취업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분해는 지역격차의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2는 1인당 GRDP에서 이 두 요소, 생산성과 취업률이 지역간 격차에 기여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몇 년 동안에 생산성 격차는 조금 완화되었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경향은 지역간 생산성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고 이는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취업률 차이의 상승과 하강의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간 취업률격차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1997-8년 IMF위기 동안에 지역간 취업률 격차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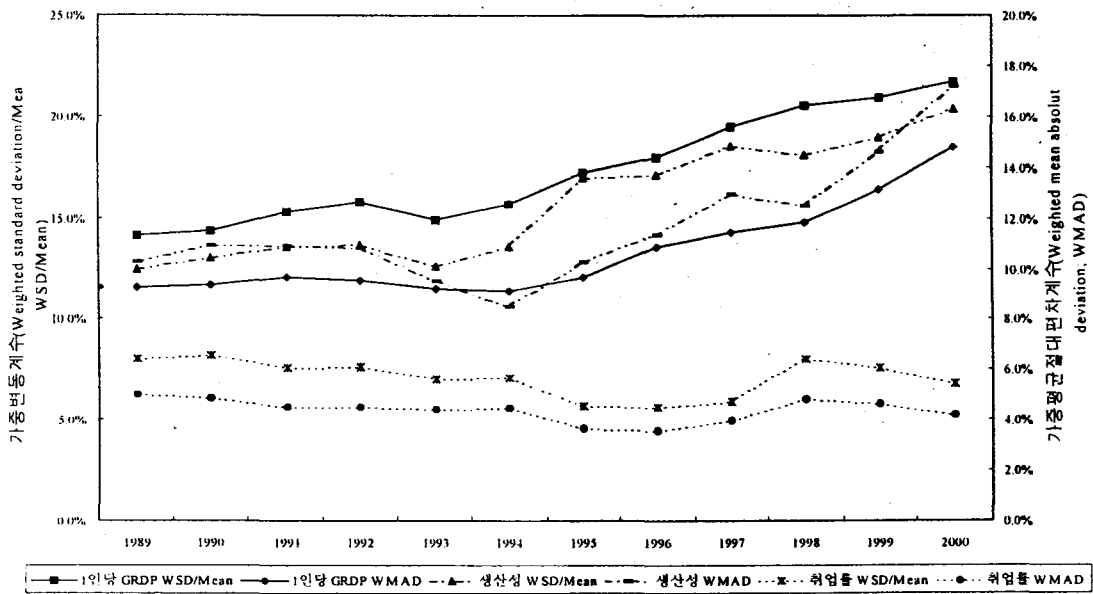


그림2. 우리나라 1인당 GRDP, 생산성, 취업률(employment rate)의 지역격차 : 1989~2000(1995년 불변가격기준)

화되었고 이 시기를 지나서는 다시 지역간 취업률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취업률격차는 1990년대 중반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1990년대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주로 지역간 생산성격차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을 더욱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등식 (1)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산요소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해 보도록 하자.

$$\ln\left(\frac{Y}{P}\right) = \ln\left(\frac{Y}{E}\right) + \ln\left(\frac{E}{P}\right) \quad (2)$$

$$\begin{aligned} \text{Var}\left[\ln\left(\frac{Y}{P}\right)\right] &= \text{Var}\left[\ln\left(\frac{Y}{E}\right)\right] + \text{Var}\left[\ln\left(\frac{E}{P}\right)\right] \\ &\quad + 2\text{Cov}\left[\ln\left(\frac{Y}{E}\right), \ln\left(\frac{E}{P}\right)\right] \end{aligned} \quad (3)$$

따라서 지역격차는 생산성, 취업률, 생산성과 취업률간 상호작용이라는 세 요소의 조합에 의해 설명될

수가 있다. 식 (3)은 1인당 GRDP의 변화가 생산성분산, 취업률분산, 그리고 생산성과 취업률의 공분산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가지 효과의 조합은 1인당 GRDP의 지역분포에서 수렴, 확산, 또는 불변의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취업률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하면, 지역격차의 지속은 생산성격차의 심화 또는 생산성과 취업률 사이의 상관관계의 증가, 아니면 양자를 반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1인당 GRDP의 분산요소분해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3을 들여다보면, 생산성은 지역격차의 주요한 결정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몇 년 동안에 생산성 요소의 비중이 아주 조금이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산성/취업률 상관관계 요소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는 생산성 요소가 1990년대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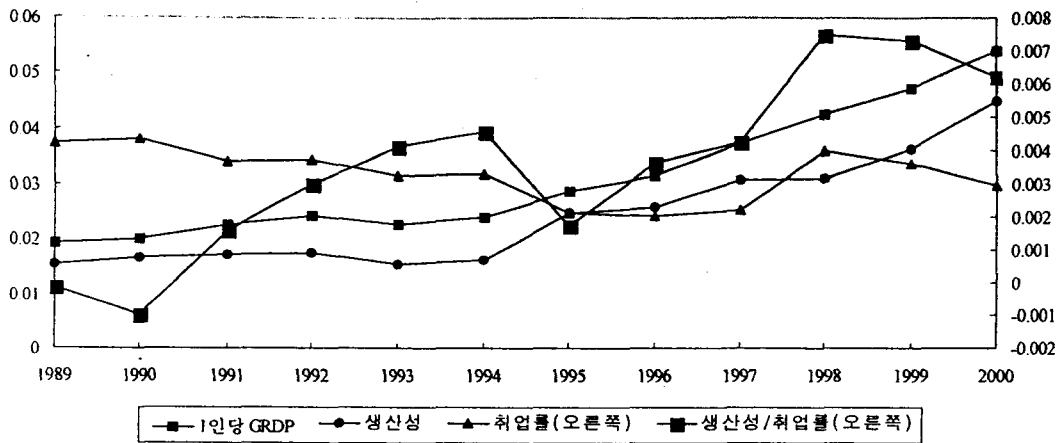


그림3. 우리나라 1인당 GRDP의 분산요소분해(variance decomposition): 1989~2000

의 지역격차를 결정하고 있다.

4. 1990년대 호남지역경제의 전개과정

1) 1인당 GRDP의 요소분해: 생산성과 취업률

위의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격차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호남지역경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경남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상대적인 1인당 GRDP 수준이 1989년 133%에서 2000년 134.3%로 증가하였다. 이 논문의 관심지역인 호남의 1인당 GRDP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대비 평균이하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전남은 여기서 예외이다. 전남의 1인당 GRDP 수준은 1989년 86.5%에서 2000년 112.3%

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 126.2%의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 는 1990년대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1인당 GRDP 변화에서의 생산성과 취업률 변동의 상대적인 역할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로축에 생산성을, 그리고 세로축에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림 4는 광주, 전북, 전남지역의 1990년대 생산성과 취업률 변화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는 전국대비 백분율로 측정된 것이다. 여기서 상대적인 생산성과 취업률 사이에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제1사분면(Type I)은 생산성과 취업률 성장이 평균이상인 영역이다. 제2사분면(Type II)에서는 생산성 성장이 평균이하이고 취업률 성장이 평균이상이다. 제3사분면(Type III)은 생산성과 취업률 성장 모두가 평균이하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생산성 성장이 평균이상이고 취업률 성장이 평균이하인 경우이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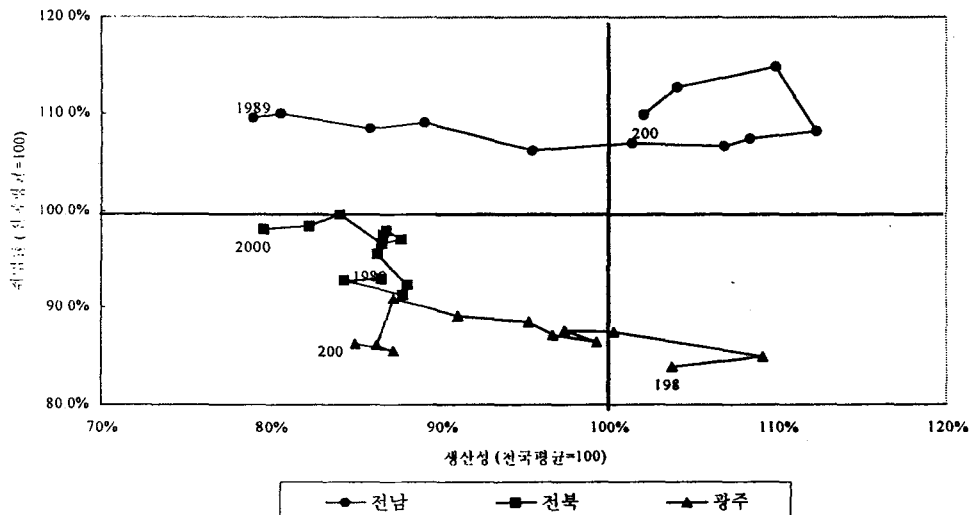


그림4. 전국평균대비 호남지역의 생산성 및 취업률 추세 : 1989~2000(1995년 불변가격기준)

표 1. 1인당 GRDP 요소분해의 조합에 따른 유형구분

유형	상대적 생산성		상대적 취업률	
	평균 이상	평균 이하	평균 이상	평균 이하
Type I	+		+	
Type II		-	+	
Type III		-		-
Type IV	+			-

그림 4가 보여주듯이, 전남은 1993년까지 Type II 영역에 속하였는데 그것은 취업을 때문이다.

1997년에 112.3%로 상대적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4년에 Type I 영역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생산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전북의 경우, 평균이하의 1인당 GRDP의 결정요소는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1990년대에 취업률이 전국평균에 근접했음지라도 여전히 Type III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광주의 경우, 상대적 생산성 수준이 1989년 103.7%에서 2000년 85%로 감소하였다. 1997-2000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미약하나마 생산성이 취업률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광주는 1992년에 Type III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Type I 을 성장지속지역, Type II 를 구조고도화지역, Type III 를 성장쇠퇴지역, Type IV 를 성장정체지역에 대응시킨다면 2000년 현재, 전남은 성장지속지역에 전북과 광주는 성장쇠퇴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표 2).

2) 누적적인 성장과정: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

호남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이 과연 성장지속 유형에 속하는가? 위의 총계적인 데이터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성장추세를 긍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지역 경제성장의 진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Blanchard and Katz(1992)가 쓴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수성장모형을 가정하고서 경제 및 인구학적 지표들(이를테면, GRDP, 1인당 GRDP, 인구, 고용)에 대한 각 지역경제의 누적성장률을 전국평균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추세 및 전국비중에서의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다.

기본적인 지수모형(exponent model)은 다음과 같다.

표 2. 1인당 GRDP 변화에 따른 1990년대 호남지역의 발전경로

발전경로	발전유형	지역
II → I (1994)	성장지속지역	전남
IV → III (1992)	성장쇠퇴지역	광주
III → III		전북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다른 사분면으로의 이동년도를 말한다.

$$y_{t+T}^i = y_t^i e^{g_{iT}^i} \quad (4)$$

y_t^i = t년에 i지역의 지표(indicator)의 가치
(GRDP 또는 소득)

T = t년 이후의 시간 길이(기간)

g_{iT}^i = 성장률

그리고 누적성장모형은 등식 (5)와 같다.

$$y_{t+T}^i = y_t^i e^{G_{iT}^i} \quad (5)$$

기간이 t=0에서 T일 때 누적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G_{iT}^i = \sum_{t=1}^T g_{t-1,t}^i \quad (6)$$

성장이 전국평균과 비교되므로 누적성장모형은 등식 (7)으로 변형된다.

$$y_T^i = y_0^i e^{G_{OT}^i + G_{OT}^i} = y_0^i e^{G_{OT}^i} e^{G_{OT}^i} \quad (7)$$

G_{OT}^i = 전국 누적성장률, G_{OT}^i = i지역의 누적성장률

따라서 i지역의 누적성장률은 등식 (8)이 된다.

$$G_{OT}^i = \ln\left(\frac{y_T^i / y_0^i}{y_T^l / y_0^l}\right) \quad (8)$$

등식 (8)의 먹지수(exponent) 값은 전국성장대비 지역 i의 성장을 나타내고, 또한 1에서 이 먹지수 값을 차감한 값은 전국성장대비 그 지역성장의 증감을 보여 준다.

그림 5는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GRDP 누적성장률, G_{OT}^i 을 보여주고 있다. 1989-2000년에 광주 GRDP 누적성장률 전국증가의 94.1%에 그쳤다. 또한 전남은 93.6%, 전북은 80.4%에 머물렀다. 특히 전북은 호남지역에서 전국평균이하의 가장 낮은 성장을 했다. 전남의 경우, 1998년까지는 전국평균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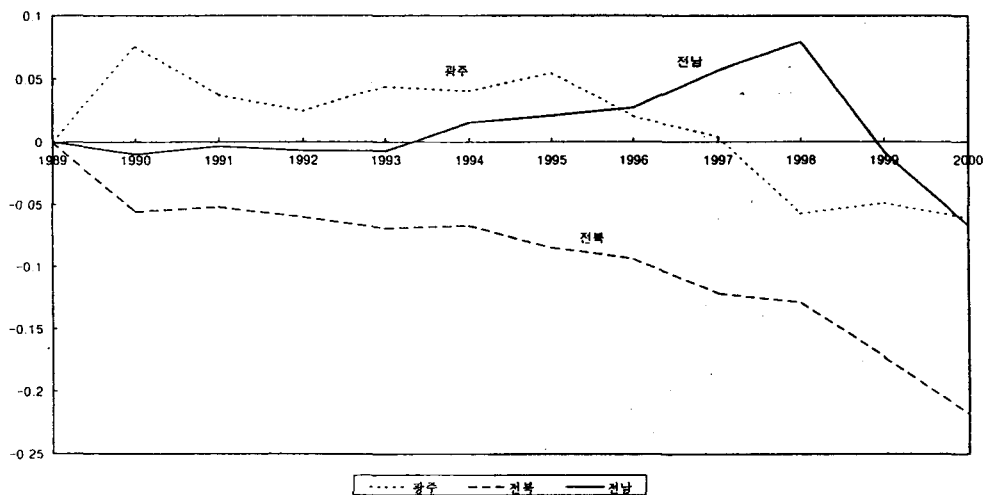


그림5.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GRDP 누적 성장률 : 1989~2000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IMF 위기 이후 누적성장률이 전국평균이하의 반전추세이다. 광주나 전북은 기본적으로 성장패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IMF 위기 이후 전북의 GRDP 누적성장률이 전국평균에서 더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서 광주의 경우는 조금이나마 하락하는 패턴이 반전되었다.

그림 6과 그림 7은 1인당 GRDP와 인구성장의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누적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RDP의 경우, 전남은 그 성장추세가 1998년 이후 꺾이기는 했으나 1990년대 줄곧 전국평균이상의 놀랄만한 성장을 하여 전국증가의 129.8% 수준에 도달하였다. 전북도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국평균이상의 성장패턴을, 그 이후부터는 전국평균이하의 성장추세를 보여주었다. 전북의 경우, 1인당 GRDP의 누적성장률은 전국증가의 97.0% 정도에 도달했을 뿐이다. 광주는 1991년 이후 전국평균이하의 성장추세를 보여주어 1인당 GRDP의 누적성장률은 전국성장의 84.2% 수준에 불과하였다.

누적인구성장의 경우, 광주는 전국평균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어 누적적성장률이 전국증가의 111.7%에 다다랐다. 반면에 전북과 전남은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이하의 누적인구성장패턴을 보여주었다. 전북은 전국성장의 82.9%, 전남은 72.1%에 이르러 전남인구의 누적성장은 전북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8은 고용의 누적성장률을 보여준다. 광주는 전국평균이상의 성장추세를, 전북과 전남은 전국평균이하의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경우, 1997-1998년에 고용의 증가추세가 꺾였으나 전북과 전남은 그 기간동안에 반전의 추세였다⁶⁾ 광주의 누적고용성장률은 전국증가의 114.8%, 전북은 87.4%, 전남은 72.3%에 이르렀다. 따라서 취업(고용)의 측면에서 전남은 전북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인당 GRDP 성장률과 GRDP와 인구성장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G(Y/P) = G(Y) - G(P) \qua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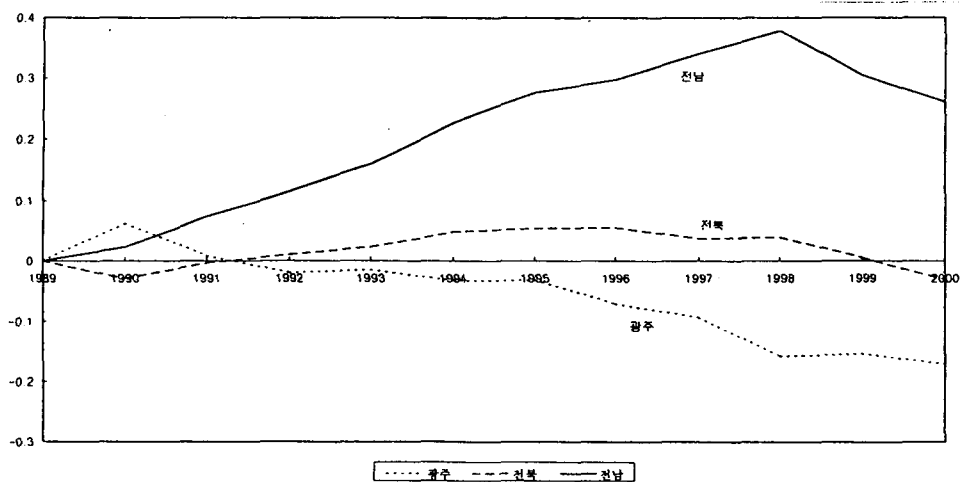


그림 6.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1인당 GRDP 누적 성장률 : 1989~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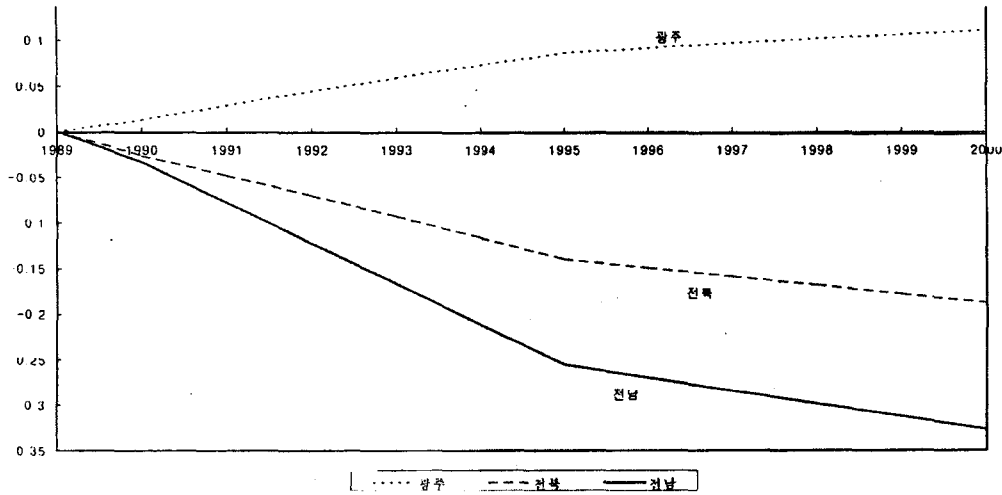


그림7.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인구 누적 성장률 :1989~2000

$Y = GRDP, P = \text{인구}, G(x) = \text{성장률}$
 다시 말해서 1인당 GRDP 성장률은 GRDP 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의 차이와 같다. 그림 9는 1인당 GRDP 누적성장에서의 GRDP, 고용, 인구의 누적성

장의 역할을 드러내 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1인당 GRDP 누적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인구의 누적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⁷⁾ 상대적인 고용성장이 상대적인 인구성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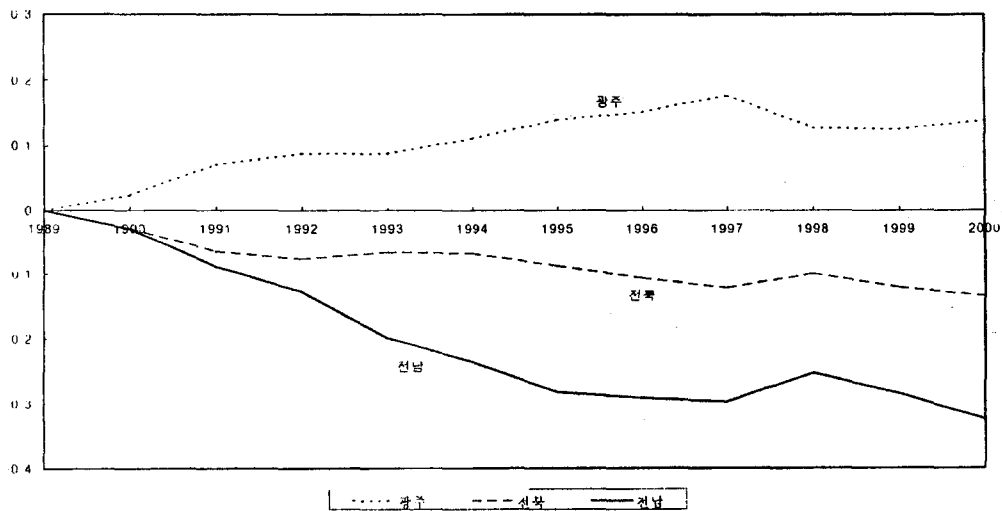


그림8.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고용누적 성장률 :1989~2000

앞지른다면 취업률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의 취업률이 1990년대 전반에는 생산성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반전되어(그림 4참조) 고용과 인구의 누적성장률이 엇비슷하였다. 인가와 고용의 누적성장패턴이 전국평균이하를 훨씬 맴돌았지만 GRDP 누적성장률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마도 이는 여천 및 여수공단과 광양의 포항제철이 전남의 GRDP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GRDP의 누적성장률이 전국평균이하였지만 인구나 고용의 그것보다 높아 1인당 GRDP 누적성장률이 전국평균 이상을 훨씬 상회할 수 있었다.

전북의 경우, 인구, 고용, GRDP, 1인당 GRDP 모두가 전국평균이하의 성장을 하였다. 그 중에서 GRDP 누적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의 누적성장률이 인구의 그것보다는 높아 1990년대 내내 취업률이 생산성을 앞질렀다. GRDP 누적성장률이 인구의 그것보다 밀돌아 1인당 GRDP 누적성장률은 전국평균이하였는데 그 수준은 전남보다는 낮지만 광주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광주의 1인당 GRDP 누적성장률은 호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당 GRDP 성장이 감소한다는 것은 인구성장이 GRDP 성장을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의 인가와 고용 누적성장률은 전국평균이상이었지만 GRDP 누적성장률은 전국평균이하였다. 1인당 GRDP의 누적성장률은 호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성장이 인구성장을 앞질러 취업률은 1997년부터 생산성을 상회하였다(그림 4참조).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북과 전남과는 달리 고용과 인구의 누적 성장률이 전국평균이상이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대도시 지역의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그 생산능력의 일부가 인근지역이나 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그 인근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그 인구가 대도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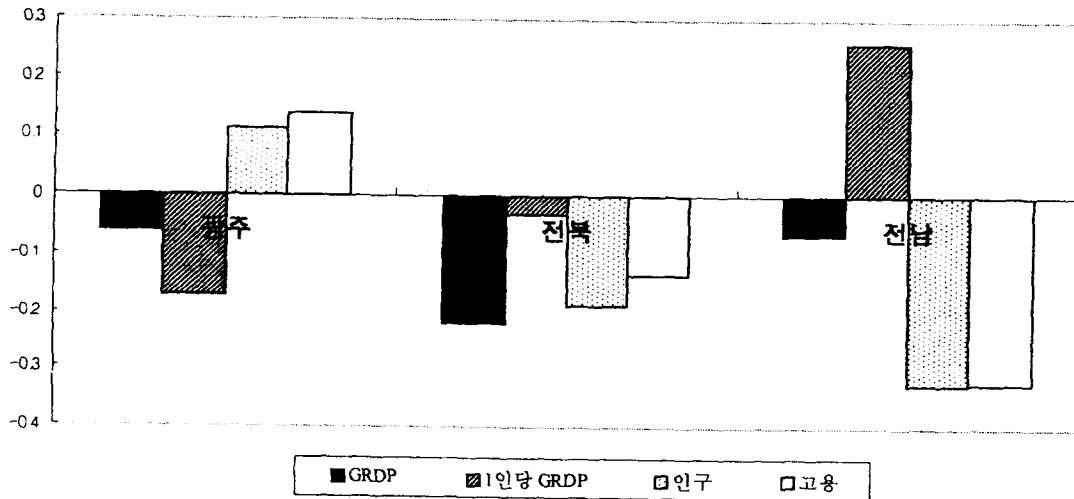


그림8. 전국대비 호남지역의 누적 성장 : 1989~2000

3) 상대적인 지역생산성의 요소분해

지역격차구조의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사용한 총계적인 통계적 지표들(가령, 1인당 GRDP, 노동생산성과 취업률 등)의 이면을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생산성의 차이가 상이한 지역경제의 부문별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지역생산성의 요소분해를 통해 개별지역경제의 차별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부문별 노동생산성 차이의 요소분해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가 왜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⁸⁾

상대적인 실제 지역생산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

$$\begin{aligned} \left(\frac{w^i - W^N}{W^N}\right) &= \sum_{j=1}^n \left(\frac{w_j^i - W_j^N}{W^N}\right) \frac{E_j^N}{E^N} + \\ &\sum_{j=1}^n (e_j^i - E_j^N) \frac{W_j^N}{W^N} + \\ &\sum_{j=1}^n \left(\frac{w_j^i - W_j^N}{W^N}\right) (e_j^i - E_j^N) \quad (10) \end{aligned}$$

- W_j^N = j산업부문 전국 생산성.
- w_j^i = j산업부문 i지역 생산성
- E_j^N = j산업부문 전국 고용비중.
- e_j^i = j 산업부문 i지역 고용비중

첫 번째 요소는 상대적 생산성, 두 번째 요소는 산업구성(composition), 세 번째 요소는 공분산(covariance)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상대적 생산성요소는 해당지역이 각 산업부문에서 지역생산성을 가지

지만 전국평균의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상대적 지역생산성이 전국생산성과 다른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각 부문에서 지역과 전국생산성을 비교하여, 0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산업들이 전국수준의 그 산업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성요소는 지역이 각 산업부문에서 전국평균의 생산성을 가지지만 그 지역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상대적인 지역생산성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거나 그렇지 못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역이 우위가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지역이 전국적 수준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부문에 특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고, 0이상인 경우 전국적으로 우위가 있는 산업부문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공분산요소이다⁹⁾

그림 10은 호남지역의 상대적 실제 생산성의 분해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¹⁰⁾ 호남지역의 전체적인 경향은 상대적 실제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 생산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도 또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기보다는 양호하지 않은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추세인 것 같다. 광주외의 경우, 상대적 실제 생산성이 1990년대 내내 거의 전국평균 이하의 수준이었다. 상대적 생산성요소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고 산업구성요소는 줄곧 전국평균이하이고 변동이 없었다. 이는 광주의 산업구조가 전국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광주의 산업부문들이 전국평균이하의 생산성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광주의 산업구조는 더욱더 양호하지 않은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도 전반적인 추세는 광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산업구성요소의 값이 음(-)이어서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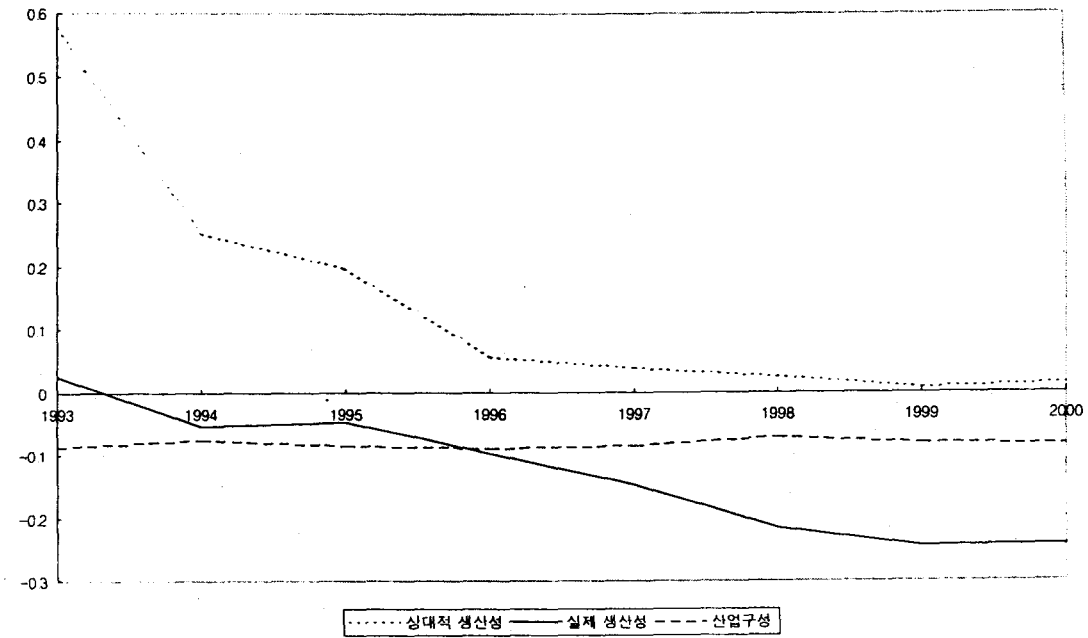


그림 10-1. 호남지역의 상대적 생산성 요소분해, 1993~2000(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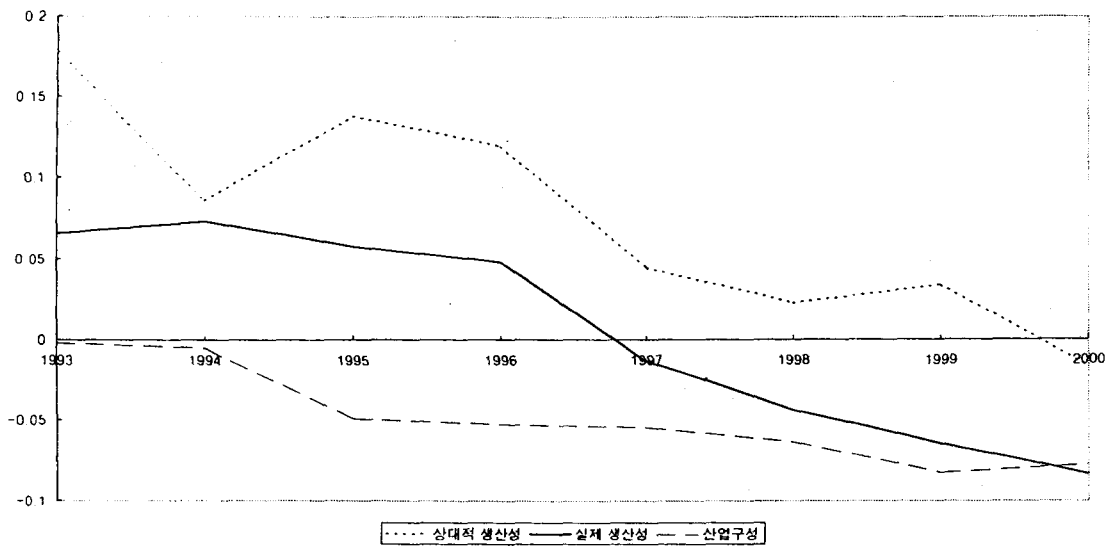


그림 10-2. 호남지역 상대적 생산성 요소분해, 1993-200(전북)

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에 특화되어 산업 구조가 전국대비 우위가 있는 편이 아니다. 더군다나 상대적 생산성요소의 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북의 산업구조는 1997년을 기점으로 양호하지 않은 산업구조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는 광주와 전북의 경우와 다르지가 않다. 하지만 상대적 실제 생산성과 그 분해요소의 값들이 전국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점이 위의 경우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남은 여전히 전국평균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들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의 산업부문의 전국대비 경제적 성과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산업구성의 값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전국평균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부문별 지역생산성이 비교되고 그것이 상대적인 지역생산성의 변화에 기여한 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 지역생산성 변화의 요소분해를 통해 가능하다. 식 (11)이 나타내는 바대로, 세 요소의 합이 상대적인 지역생산성 성장률이다.

$$\frac{\Delta w_t^i}{\Delta W_t^N} = \sum_{j=1}^n \left(\frac{w_{jt}^i - w_{jt-1}^i}{W_t^N - W_{t-1}^N} \right) e_{jt-1}^i + \sum_{j=1}^n (e_{jt}^i - e_{jt-1}^i) \frac{w_{jt-1}^i}{W_t^N - W_{t-1}^N} + \sum_{j=1}^n \left(\frac{w_{jt}^i - w_{jt-1}^i}{W_t^N - W_{t-1}^N} \right) (e_{jt}^i - e_{jt-1}^i) \quad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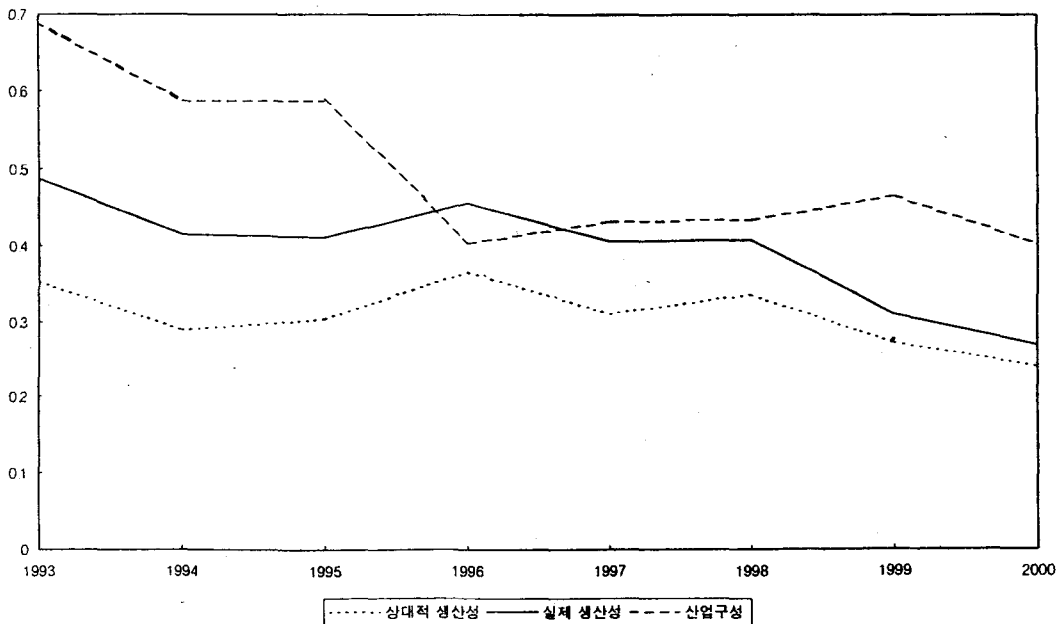


그림10-3. 호남지역의 상대적 생산성 요소분해, 1993~2000(전남)

첫 번째 요소는 부문내(Within) 효과, 두 번째 요소는 부문간(Between) 효과, 세 번째 요소는 공분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부문내 효과는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이 일정하다고 하면 전국생산성 변화에 대한 산업부문별 지역생산성 변화를 가리킨다. 이는 전국생산성 변화에 대한 각 산업부문내 지역생산성 변화가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성과에 기여한 바를 나타낸다. 이 값의 증가는 전국대비 그 지역에서 그 부문의 지위가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인당 부가가치의 상대적인 증가로 나타난다.

부문간 효과는 전국생산성 변화에 대한 산업부문별 지역생산성이 일정하다고 하면 산업부문별 지역고용비중 변화와 연관된 상대적인 생산성 변화를 일컫는다. 이는 산업부문별 지역의 고용비중 변화가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성과에 기여한 바를 나타낸다. 이 값의 증가는 지역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상대적인 지역생산성 변화에 대한 요소분해는 부문내 생산성 변화 및 부문간 고용의 재배치가 지역경제의 상대적 성과에 대한 기여도 및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3은 산업별 호남지역생산성의 부문간 및 부문별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호남지역은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상대적 생산성 성장을 하였다. 상대적 생산성 성장률은 광주가 -1.65, 전북이 0.18, 그리고 전남이 0.99이었다. 광주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북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전남만이 전국평균에 근접했을 뿐이다. 상대적 생산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부문내 및 부문간 효과를 들여다보면, 광주와 전북의 경우에는 부문간 효과가 생산성 변화에 중요한 요

인이고 광주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광주의 경우, 상대적 생산성 성장률이 -1.65인데, 건설업(-0.86), 운수창고업(-0.54), 제조업(-0.51), 도소매업(-0.17)등이 엄청난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했다. 반대로 농림어업(0.22), 통신업(0.16), 금융보험업(0.13)등이 이러한 성장추세에 제동을 건 셈이다. 건설업(-1.1), 운수창고업(-0.45), 부동산사업서비스(-0.29),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0.14), 제조업(-0.11) 등의 순으로 부문내 효과의 음(-)의 값에 기여를 했고 농림어업(0.28), 통신업(0.25)등이 이것에 제동을 걸었다. 부문간 효과도 음(-)의 값을 갖는데 제조업(-0.42), 통신업(-0.11) 등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고 부동산사업서비스(0.39), 건설업(0.21) 등이 이에 대해 반작용을 가하였다.

전북은 광주보다 상대적 생산성 성장이 훨씬 빠르지만 전국평균보다는 훨씬 느린 편이다. 그 성장률이 단지 0.18에 불과하다. 건설업(-0.42), 제조업(-0.09) 등이 성장에 제동을 걸었고 부동산사업서비스(0.26),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0.24), 농림어업(0.21), 금융보험업(0.15) 등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농림어업(-1.14)이 부문내 효과가 음(-)의 값(-0.41)을 갖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제조업(0.47), 금융보험업(0.18), 부동산사업서비스(0.13) 등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였다. 부문간 효과는 1.27이고 여기에는 농림어업(1.95),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0.27), 부동산사업서비스(0.12) 등이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제조업(-0.56), 건설업(-0.50) 등이 이 값을 끌어 내렸다. 전남의 경우, 상대적 생산성 성장률이 전국평균에 근접하여 0.99이다. 여기에 기여한 업종들은 제조업(0.97),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0.24), 농림어업

표3. 산업별 지역생산성의 부문내 및 부문간 요소분해, 1993-2000

지역	산업부문	부문내	부문간	상대적 생산성 성장률	고용비중		상대적 생산성	
					1993	2000	1993	2000
광주	농림어업	0.2763	-0.0890	0.2182	0.0001	0.0004	7.49	4.47
	광업	-0.0008	0.0013	-0.0004	0.0008	0.0001	1.06	0.13
	제조업	-0.1084	-0.4218	-0.5095	0.2006	0.1563	1.49	0.91
	전기가수수도업	0.0411	-0.0337	0.0210	0.0014	0.0030	0.97	0.44
	건설업	-1.1017	0.2116	-0.8607	0.0572	0.0749	0.99	0.55
	도소매업	-0.0938	-0.0773	-0.1736	0.2440	0.1942	1.15	1.13
	음식숙박업	-0.0947	-0.0057	-0.0988	0.0935	0.1122	1.00	1.16
	운수창고업	-0.4481	-0.0557	-0.5374	0.0484	0.0590	1.36	0.65
	통신업	0.2545	-0.1126	0.1560	0.0089	0.0116	0.78	0.88
	금융보험업	0.0521	0.0827	0.1298	0.0710	0.0604	0.86	0.60
	부동산서비스	-0.2899	0.3946	0.0499	0.0451	0.0681	0.83	0.77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	-0.1422	0.1042	-0.0456	0.2289	0.2597	1.01	0.86
전체	-1.6556	-0.0015	-1.6510	1.0000	1.0000	10.2	0.76	
전북	농림어업	-1.1406	1.9551	0.2121	0.0017	0.0048	3.63	2.32
	광업	-0.0029	-0.0047	-0.0078	0.0039	0.0020	1.46	1.32
	제조업	0.4683	-0.5608	-0.0944	0.2191	0.1826	1.35	0.87
	전기가수수도업	0.0320	-0.0161	-0.0556	0.0037	0.0038	0.46	0.61
	건설업	0.1185	-0.5037	-0.4225	0.0818	0.0462	0.65	1.41
	도소매업	-0.0319	0.0289	-0.0038	0.1884	0.1877	0.73	0.80
	음식숙박업	-0.0839	0.0314	-0.0568	0.0905	0.1241	1.03	1.16
	운수창고업	-0.0698	-0.0121	-0.0845	0.0462	0.0545	0.86	0.79
	통신업	0.0527	-0.0118	0.0355	0.0110	0.0129	0.55	0.60
	금융보험업	0.1848	-0.0276	0.1533	0.0591	0.0514	0.79	0.65
	부동산서비스	0.1308	0.1218	0.2613	0.0242	0.0409	1.09	1.07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	-0.0086	0.2707	0.2432	0.2706	0.2891	0.95	0.93
전체	-0.4145	1.2712	0.1802	1.0000	1.0000	1.07	0.92	
전남	농림어업	0.9342	-1.2369	0.1857	0.0237	0.0365	0.42	0.48
	광업	0.0381	-0.0028	0.0309	0.0167	0.0082	0.87	0.50
	제조업	1.0497	-0.0575	0.9671	0.2054	0.1660	2.26	1.60
	전기가수수도업	0.0855	-0.0476	0.0533	0.0088	0.0075	1.14	1.78
	건설업	1.2599	-0.8302	-0.1294	0.0421	0.0537	1.68	1.34
	도소매업	-0.1484	-0.0008	-0.1566	0.1929	0.1776	0.70	0.83
	음식숙박업	-0.1097	0.0413	-0.0748	0.0901	0.1258	1.48	1.52
	운수창고업	-0.1468	-0.0724	-0.2346	0.0579	0.0527	0.96	1.68
	통신업	0.0151	0.0431	0.0590	0.0146	0.0111	0.42	0.68
	금융보험업	0.1219	-0.0436	0.0754	0.0527	0.0470	0.81	0.75
	부동산서비스	0.0635	-0.0828	-0.0234	0.0340	0.0365	0.90	1.08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	-0.0927	0.3533	0.2388	0.2609	0.2773	1.01	0.95
전체	3.0703	-1.9369	0.9916	1.0000	1.0000	1.49	1.27	

(0.19) 등을 포괄한다. 반면에 운수창고업(-0.23), 도소매업(-0.16), 건설업(-0.13) 등이 상대적 생산성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1.26), 제조업(1.04), 농림어업(0.93) 등이 부문내 효과의 양(+)의 값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들은 생산성이 증가하여 1인당 부가가치액이 높아진 업종들이라 할 수 있다. 농림어업(-1.24), 건설업(-0.83) 등이 고용의 성장과 연관되는 부문간 효과의 음(-)의 값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0.35)가 이에 대해 반작용을 가하였다. 이들은 고용의 성장이 억제된 업종들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호남지역에서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호남지역이 전국보다 훨씬 느린 성장에 제동을 걸어 상대적 생산성 성장에 기여를 한 업종들이다. 광주에서는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성장이, 전북에서는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의 성장이, 전남에서는 통신, 금융보험,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와 전북에서는 부동산사업서비스와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전남에서는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전하였다. 따라서 호남지역 전체로 보면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이 상대적 생산성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전남에서는 제조업 성장이 상대적 생산성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반면에 광주와 전북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이다. 또한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은 호남지역의 상대적 생산성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설업은 광주와 전북의 상대적 생산성 생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남에서는 운수창고업이 그

런 역할을 하였다.

5. 요약과 결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상대적인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매우 나쁘고 저조하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이는 전남지역이다. 세 번째, 전남지역의 높은 1인당 GRDP는 상대적 누적인구성장률과 GRDP의 상대적 누적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음(-)의 값을 갖는데 전자가 더 큰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네 번째, 호남지역의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이 전국평균이하 수준이다. 광주는 특히 그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다섯째,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요소분해를 시도한 결과,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보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업의 육성은 낙후지역경제발전의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제조업의 투자와 이에 따른 순환누적인과의 발전과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장기발전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일변도의 지역발전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의 보조와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선행되어야 그러한 발전을 담을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註

- 1)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요약으로는 Martin and Sunley(1998)을 참조하시오.
- 2) 이에 대해서는 정준호(2000)의 폴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참조하시오.
- 3) 이런 방법론을 사용한 최근 연구로는 Cameron et. al.(2002)과 Dunford(2002)를 참조하라.
- 4)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통상 1년)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성과(부가가치)를 생산측면에서 파악한 통계이다. 지역소득에는 국민소득과 마찬가지로 주민개념과 지역개념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역내개념의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된다. 이 논문에서 2000년 GRDP는 잠정치이다.
- 5) 울산은 1998년부터 통계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울산을 경남에 포함시켰다.
- 6) 아마도 IMF 위기로 인한 대량실직으로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자 일부가 대도시인 광주에서 인근지역인 전북과 전남으로 이동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 7) 인구의 누적성장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인구의 지역간 이동 또는 자연적 증감에 의한 것인지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성장패턴을 유추해본다면 전자에 의한 가능성이 클 것 같다.
- 8)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최근의 지역연구로는 Cameron et. al. (2002)과 Dunford(2002)를 참조하시오.
- 9) 여기서 이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 10) 여기서 상대적 생산성의 지표를 구할 때, 투입에 해당되는 취업자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보고되는 월평균 종사자수이다. 그리고 산출은 금융취속서비스를 지역산업별 비중에 따라 차감한 GRDP이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지역생산성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산업부문(가령, 농림어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국과 비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비껴나갈 수 있다.

참고문헌

- 정준호, 2000, 폴크루만의 신경제지리학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공간과 사회』13호, 312-328.
- Blanchard, O. J. and Katz, L. F., 1992,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75.
- Borts, G. H. and Stein, J. L., 1964, *Economic Growth in a Free Marke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meron, G., Muellabuer, J and Snicker, J., 2002, "A study in structural change: relative earnings in Wales since the 1970s," *Regional Studies*, 36(1), 1-11.
- Dunford, M., 2002, "Italian regional evolu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forthcoming).
- Kurgman, P., 1991, *Geography and Trade*, Massachusetts: MIT Press.
- Martin, R. and Sunley, P., 1998, "Slow convergence?: the new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74, 201-227.

Abstract

The Honam Region's Evolutions in the 1990s: Convergence or Divergence?

Jun Ho Jeong*

The Honam reg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lagging regions in Korea. Drawing upon some decompositions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per head and labor productivity, the overall trend of inequalities in Korea has been revealed and the trajectory of the Honam region's economic change has been identified by examining how the region's economic performance changed relative to that of Korea in the 1990s. There are some findings. First of all, Korea is characterized by strong divergence in the development of its region economies, in terms of per capita GRDP, which relies upon productivity differentials rather than differences in employment rates. Second, the Honam region has displayed poor economic performances in terms of GRDP per head except for Jeonnam. Third, the dramatic fall in cumulative population growth relative to the national average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the Jeonnam's overwhelming economic performance measured by per capita GRDP. Fourth, the decline in the relative productivity of the Honam region is mostly explained by falling relative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in construction, transport and manufacturing, althoug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tter sector has made positive contribution to raising relative regional productivity of Jeonnam. Fifth, overall the shift in employment to service sector, especially to social, personal, public, health, education, other services other than distribution, hotels, catering has tended to support relative regional productivities, along with the positive contribution being mad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to relative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in the Honam region.

* Associate Research Fellow, KIET